‘붕괴사고’ 남광주시장 구조물 부실시공 의혹

지난 4월에도 철재 아케이드 휘어져…상인 신고로 땜질 보강
안전점검 촉구에 동구, 시공사 말만 믿고 적절한 조치 안해
하루 7000여명 방문에도 ‘안전불감 人災’…경찰 조사 착수

천장 철재 아케이드가 붕괴해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 했던〈**광주일보 13일자 6면**〉 광주 남광주시장에서 세 달여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상인들은 당시 추가 붕괴위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장 전역에 설치된 아케이드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동구는 시공사 말만 믿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붕괴사고는 동구가 상인들의 호소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전형적 인재(人災)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남광주시장은 하루 평균 방문객 수 7000~8000명에 달하고 지난해 10월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 개장 이후에는 하루 평균 5만 명(개장일 기준) 이상 방문객이 찾는 대형 전통시장이다.

13일 동구와 남광주시장 상인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오전 6시30분께 남광주시장 내 건어물전 통로 천장에 설치된 철재 아케이드(가로 3m·세로 20m)가 최소 30㎝ 가량 볼록렌즈처럼 아래로 처져 있는 것을 상인들이 발견, 동구에 신고했다.

해당 철재 아케이드는 한 개당(무게 40㎏ 추정) 너비 4m·길이 2.4m로, 수산물·건어물전·국밥거리 등 시장 안 메인 통로 천장에 99개(총 길이 238m)가 그물처럼 연결돼 있다. 동구는 지난해 10월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사업 일환으로 예산 3억7900만 원을 들여 달·별 모양의 조명등이 부착된 철재 아케이드를 설치했다.

지난 4월 붕괴우려를 감지한 상인 A씨는 “새벽에 가게 문을 열면서 우연히 천장을 봤는데, 철재 아케이드가 마치 엿가락처럼 땅바닥을 향해 휘어져 있었다”면서 “30분이 지난 후엔 처짐 현상이 더 심해진 것을 보고 동구청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동구는 이날 시공업체인 A사 직원들과 함께 사고 현장을 방문, 철재 아케이드를 지탱해주는 지름 2㎜의 와이어(철재) 한 개가 끊어진 것을 발견, 처짐현상(너비 3m·길이 5m)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름 5㎜의 와이어 20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보강공사를 진행했다.

당시 상인들은 ‘철재 아케이드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며 시장 전역에 설치된 아케이드에 대해 안전점검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동구는 현장에서 육안검사 후 ‘이상 없다’는 시공업체의 보고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철수했다.

상인들은 “당시 동구가 안전점검만 제대로 했어도 지난 12일 발생한 수산물점 통로 천장 아케이드 붕괴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연달아 사고가 난 수산전과 건어물전간 거리는 불과 10여m 안팎이다.

이 같이 시장 곳곳에 설치된 철재 아케이드가 휘거나 무너져 내리면서 전반적인 부실시공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 설치된 지름 2㎜의 와이어가 철재 아케이드 하중을 견디다 못해 끊어진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두꺼운 재질의 와이어를 사용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동구 관계자는 “지난 4월 상인들의 얘기를 듣고 난 뒤 시공업체에게 전 구간에 대한 안전점검 지시를 내리기는 했다”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광주시가 파견한 구조안전기술사의 점검결과를 지켜본 뒤 보강공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남광주시장 철재 아케이드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지난 1960년대 조성된 남광주시장(연 면적 2만4781㎡)에는 건어물·수산물·의류·요식업 등 점포 203개가 성업 중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철재 아케이드 제대로 점검하자” 광주시가 파견한 구조안전기술사 등이 13일 동구 남광주시장에서 천장 철재 아케이드를 점검하고 있다. 이 시장에서는 지난 12일 천장 철재 아케이드가 붕괴해 6명이 다쳤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검찰 “5·18 북한군 투입 허위”…지만원 거짓말 거듭 확인

명예훼손 혐의 등 불구속 기소

검찰에서 보수논객 지만원(76)씨가 5월 관련 거짓 주장을 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지씨는 ‘5·18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계엄군에 체포된 이들이 광주 시민이 아닌 북한 특수군이었다’고 주장해온 장본인이다. 지씨는 광주항쟁과 관련 모두 4차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상해 혐의로 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2015년 6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5·18 당시 계엄군에 체포된 이들의 사진을 올리며 “체포되는 자들은 광주 시민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북한 특수군 일원인 것으로 보였다”라고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18 현장의 시민들이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최룡해, 박명철, 문응조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사진 속 등장인물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당시 민주화운동 현장에 참여한 시민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지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5·18에 참가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작년 두 차례 기소됐다. 검찰은 지씨가 지난해 재판을 받던 중 방청하러 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했다.

지씨는 작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퇴정하던 도중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관계자들을 보고 “광주 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배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항의하는 이 단체 추모 국장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백모 이사의 가슴을 때려 전치 3주의 갈비뼈 골절상을 각각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씨는 유사한 혐의로 4차례 고소당했다. 2015년 8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5·18 왜곡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지씨를 고소했다. 같은 해 10월 북한 특수군(광수)로 지목된 당사자 4명이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냈고, 지난 5월12일에는 5·18민주화 운동 유공자 8명이 지씨를 상대로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최근 광주항쟁을 지속적으로 왜곡·폄훼한 지씨 등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박진표기자 lucky@

옛 전남도청 현판 총탄 자국 가능성

국과수 “7개 중 1개 카빈소총 또는 권총 흔적일 수도”

전남도가 보관 중인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정문에 걸렸던 현판의 패임자국은 총탄에 의한 함몰일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5·18 당시 전남도청 정문 현판을 감정한 결과, 7개 흔적 중 1곳은 M1 카빈 소총 또는 권총의 총탄 충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판은 가로 31.5㎝, 세로 132.5㎝ 크기의 황동 주물로 제작된 것이다. 해당 부위는 세로로 쓰인 ‘전라남도청’이란 글씨 중 ‘전’자의 ‘ㄴ’ 부분 옆에 생긴 직경 3㎝ 내외의 원형 함몰 자국이다.〈**점선 안 사진**〉

이 자국은 총탄에 의한 함몰 형태로 보이지만, 총탄이 직접 충격한 지점에 생기는 압축력이나 주변에 발생하는 인장력에 따른 변형 흔적이 식별되지 않아 총탄 흔적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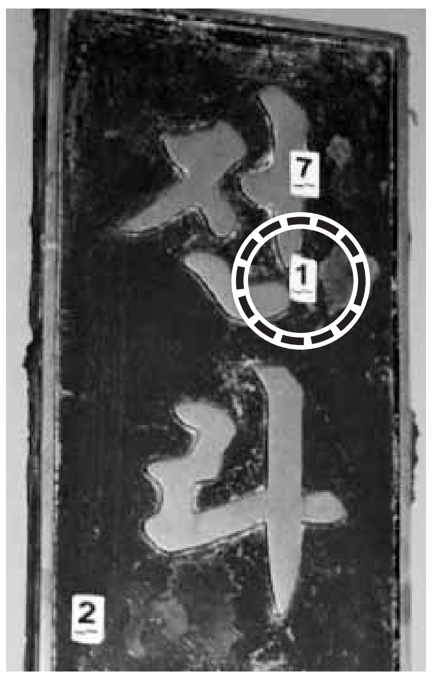
탄흔이라면 M1 카빈 소총이나 권총의 총탄 흔적이다고 밝혔다.

5·18 당시 사용됐던 총기류는 M16 소총, M1 개런드 소총, M1 카빈 소총, 권총 등인데, M16 소총과 M1 개런드 소총의 총탄은 앞 부분이 뾰족한 팁(tip) 형태이고, M1 카빈 소총과 권총의 총탄은 앞부분이 둥근 라운드 노즈 타입의 형태라는 것이다. 도청 현판에 나타난 흔적은 원형의 함몰이기 때문에 M1 카빈 소총이나 권총의 탄흔이라는 설명이다.

국과수는 또 다른 함몰 1개와 천공 2개, 천공을 메운 것으로 보이는 흔적 3개 등 나머지 6개의 흔적은 모양을 봤을 때 탄흔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감정했다.

이번 감정 결과는 현판을 손상하지 않는 비파괴 방법에 의한 진행됐다. 국과수는 탄흔인지 정확히 알려면 현판 도장 제거와 파쇄해 감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현판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분수대 앞 전남도청 정문에 부착됐다가 2005년 10월 도청이 무안으로 옮길 당시 떼어졌다. 현재 공공기록물로 분류돼 전남도청 5층 기록관에 보관 중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권은희 의원 항소 기각 원심대로 벌금 80만원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권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권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혁신산단 사업 2994억원 예산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모친에 용돈 타내려 거짓 112 신고 ‘철없는 30대’ 구류 처분

쌍나팔

○…모친에게 용돈을 타내기 위해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류 처분.

○…13일 경기 포천경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포천시지원은 지난 1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A(31·무직)씨에 대한 즉결심판을 열어 구류 3일을 선고.

○… 해당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에 3일간 입감됐다가 풀려난 A씨는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어머니가 동거남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허위 112신고를 한 혐의를 받았는데, 경찰에서 “어머니에게 번거로운 일을 겪게 하면 자신에게 돈을 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 /연합뉴스

G.O.Auction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건물] 남구 주월동 대로변접 병원최적합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7층건물 대지 994㎡ 건물 2,028㎡ 매매 45억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음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음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음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사우나

★ [건물] 북구 두암동 지1-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음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담후결정)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1-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가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천3백포함)

★ [건물] 광주 동구 계림동 사우나 위치좋음 지1-4층 대지 949.00㎡ 건물 827.74㎡ 매매 30억 (상담후결정)

★ [건물] 북구 두암동 지1-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 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중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융5억포함)

토지 추천 물건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65억 근린시설 스포츠타운 최적합

★ [토지] 광산구 송정역(KTX) 인근대로변 접 대지 1342㎡ 매매 45억

★ [토지] 동구 지산동 무등산관광호텔주변 카페거리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공장, 물류창고, 주택 적합

★ [토지] 서구 풍암동 녹지지역 임야26.139㎡ 매매 평당7만

★ [토지] 북구 삼각동 1종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10억 조정가능 공장, 물류창고, 주택 적합

★ [토지]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자연녹지지역 123,868㎡ 매매 평당5만

공인중개사 김 은 희 062-714-2254